

08

가축별 사일리지 급여량은 어떻게 되나요?



■ 사일리지 가축 급여

- 사일리지는 젖소 및 비육우의 기호에 알맞고 특히 젖소의 다즙사료로 좋다.
 - 젖소에 대한 일반적인 급여량은 15~20kg(체중의 3% 내외)으로 급여하며, 미국에서는 20~50kg까지 급여해도 무방하다고 한다.
 - 육우는 10~15kg이 적당하며 면양은 5~8kg 정도 급여하게 된다.
- 사일리지를 급여할 때는 다음과 같이 주의할 사항이 있다.
 - 급여량을 조절하며, 남는 것은 변질의 우려가 있으므로 버리도록 한다.
 - 사일리지는 농후사료나 건초와 함께 급여한다.
 - 설사하는 가축에게 급여하면 설사가 더욱 심해질 우려가 있으니 중지한다.
 - 여름철에는 변질될 우려가 있으므로 하루 급여량만 꺼내어 급여한다.

〈 가축별 사일리지 급여량 〉

(김, 1991)

가축의 종류	급여량(kg/두/일)	가축의 종류	급여량(kg/두/일)
젖소(13개월령 이상)	15~20	육우	10~15
(10~12개월령)	10~15	면양	5~8
(6개월령 이하)	4		

■ 볏짚 곤포 사일리지의 가축 급여

- 볏짚 곤포 사일리지는 제조 후 약 40일이 지나면 급여가 가능하다.
- 급여 할 때에 짧게 자를 수 있는 기계가 있으면 잘라서 급여해도 좋다.
- 비닐을 벗겨내고 세워서 두면 저절로 조금씩 풀어지므로 운동장 사료조에 두면 가축이 조금씩 먹을 수가 있다.
- 바닥에 놓고 곤포가 된 반대 방향으로 굴리면 쉽게 풀어진단다.
- 가축 급여량은 일반적인 관행에 따라 급여한다.
- 건조 볏짚보다 섭취량이 더 우수하다.